



자, 맡겨 주세요!

이소영 지음 | 비룡소 창작그림책 77 | 220*290mm | 44쪽 | 값 16,000원 | 4세부터

ISBN 978-89-491-0262-7(74800) / 978-89-491-0152-1(세트)

2023년 11월 22일 (주)비룡소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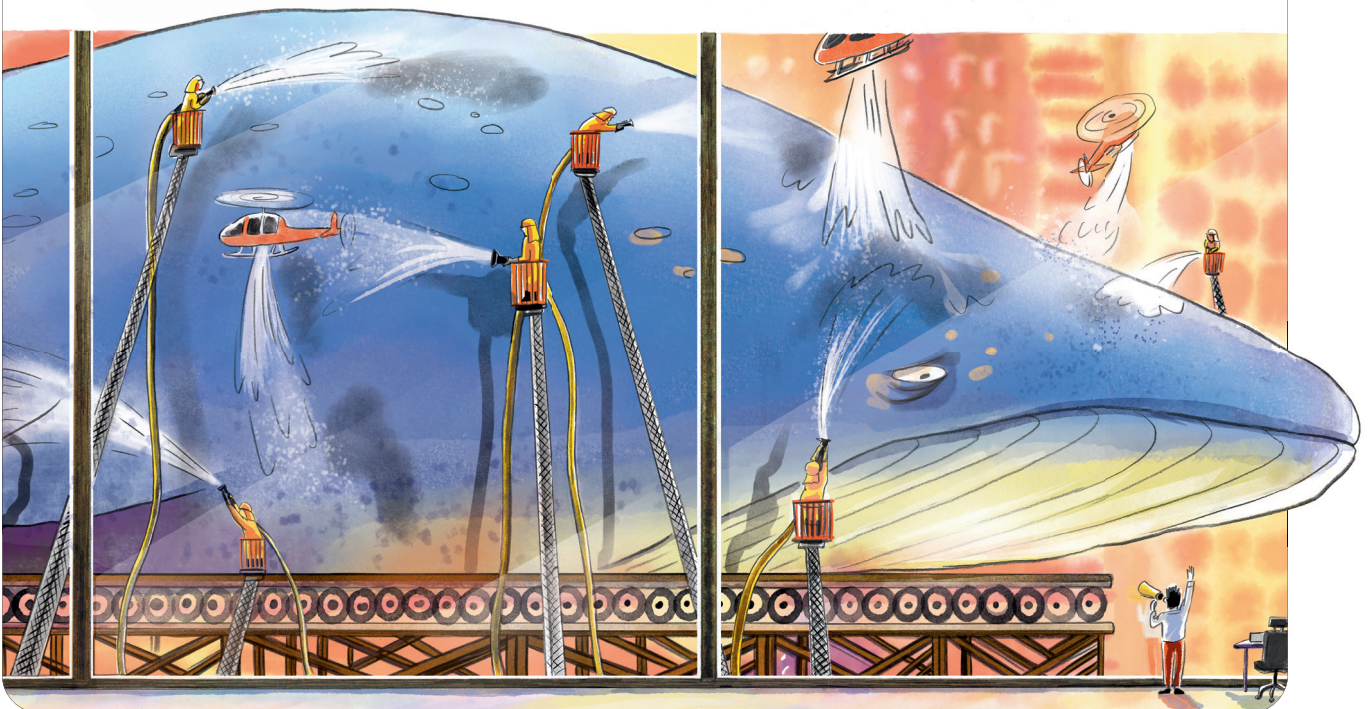
제품명 어린이용 각양장 도서 | 제조자명 (주)비룡소 | 제조국명 대한민국 | 사용연령 4세이상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문제를

유쾌하고도 예리하게 꼬집은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작가 신작!

한국과 프랑스에서 그림책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작가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세련된 색감에 풍부한 표정의 캐릭터들이 유쾌하게 펼치는 이야기 속에는 뼈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모든 걸 편리하고 빠르게만 맞춘 시스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국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제목부터가 반전인 이 그림책이 던지는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더 붙어 사는 것에 중요함 등의 다양한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 풍부한 표정과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체

주제에 맞게 더워지는 지구를 표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열감이 도는 주황 톤으로 진행이 된다. 이에 연두, 파랑, 노랑 등의 밝고 가벼운 색들이 조화롭게 어울린다. 가볍고 밝은 색들이지만 보는 내내 덥고 뜨거워지는 느낌이다. 여기에 익살맞고 풍부한 표정의 등장인물들은 각상황들을 더욱 실감 나고 재미 나게 표현한다. 눈과 입 모양, 익살맞은 몸동작 등으로 힘들고 억울한 느낌을 최대한 전달한다. 각 장면마다 분할되고 확장되는 반복적인 리듬을 갖는 다양한 형식의 구성은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킨다. 또 앞뒤 면지에 딸각딸각 카운팅 되는 지구의 남은 시간을 표현해 더욱 긴장감을 준다.

이소영

한국과 프랑스에서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안녕, 나의 루루』,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겨울*』, 『여름,』 등이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집안 쓰레기양에 아연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도 체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을 사 마시는 세상이 올 거란 선생님의 말씀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걸 미래에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어린이들을 보며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해 봅니다. 환경을 위해 많은 운동가, 연구자, 사상가들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전히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인간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이 책은 환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과 자세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주간 박지은 02)515-2000(내선번호 317) / allball7@bir.co.kr

편집 정은정 02)515-2000(내선번호 322) / aimat@bir.co.kr